

“어흥~” 타이거, 세상 호령

PGA 마스터스 우승...44세 역대 두번째 최고령 챔피언
14년만에 다섯번째 그린재킷...PGA 81승·메이저 15승

타이거 우즈(미국)가 고향 같은 마스터스에서 ‘골프 황제’의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우즈는 15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첫 번째 메이저대회 마스터스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3언더파 275타로 우승했다.

공동 2위 더스틴 존슨, 잰더 쇼플리, 브룩스 캠퍼(이상 미국)를 1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오른 우즈는 지난 2005년에 이어 14년 만에 마스터스 우승자에게 주는

그린재킷을 다시 입었다. 우승 상금은 207만 달러(약 23억5000만원)다.

1997년 마스터스에서 메이저 첫 우승을 최연소, 최소타, 최다 타수 차로 장식하며 새로운 골프 황제의 탄생을 알렸고 이후 2001년, 2002년, 2005년에도 우승한 우즈는 극적인 부활 드라마 역시 이곳에서 연출했다.

마스터스 통산 5번째 우승으로 잭 니클라우스(미국)의 최다 우승(6회)에 바짝 다가선 우즈는 샘 스니드(미국)가 가진 PGA 투어 최다 우승(82승)에 단 1승을 남겼다.

무엇보다 2008년 US오픈 제패 이후 11년 동안 멈췄던 메이저대회 우승 시계의 바늘을 다시 돌린 게 반갑다. 메이저대회 15승째를 올린 우즈는 니클라우스의 메이저 최다승(18승) 추격에 시동을 다시 걸었다.

지난해부터 ‘천적’으로 떠오른 프란체스코 몰리나리(이탈리아)에 2타 뒤진 공동 2위로 챔피언즈 맞대결에 나선 우즈는 중반까지는 몰리나리의 빗장골프에 감혀 답답한 경기를 이어가야 했다.

우즈는 10번 홀까지 버디 3개를 잡아냈지만 보기 3개를 적어내 타수를 공평 지킨 몰리나리를 따라잡지 못했다.

하지만 오거스타의 악명 높은 아멘코너는 우즈 편이었다. 아멘코너 두 번째 홀인 11번 홀(파3)에서 몰리나리는 티샷을 짧게 쳐 물에 빠트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2타를 잃은 몰리나리와 공동 선두가 된 우즈는 15번 홀(파5)에서 승부를 갈랐다.

티샷을 페어웨이 안착시킨 우즈는 227야드를 남기고 그린에 볼을 올린 뒤 버디를 보태 마침내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이어 16번 홀(파3)에서 1.5m 버디 파트를 집어넣으며 승부에 췌기를 박았다.

18번 홀(파4)에서 티샷 실수로 세 번 만에 그린에 올라와 1타를 잃었지만 우즈의 우승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한뼘 거리 보기 파트를 집어넣은 우즈는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했다.

세계랭킹 2위 존슨과 ‘황금세대’의 일원인 쇼플리는 4타씩을 줄여 공동 2위에 올랐고, 작년 US오픈과 PGA 챔피언십을 제패한 캠퍼는 2언더파 70타로 공동 준우승에 합류했다.

/연합뉴스



“해냈어!” 타이거 우즈(미국)가 15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내셔널골프클럽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메이저대회 제83회 마스터스에서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두 팔을 벌리며 포효하고 있다.

/연합뉴스



펼 펼쳐 나는 신예들 ... 베테랑도 경쟁시대

T 타이거즈 전망대

■KBO중간순위 (16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NC	19	13	0	6	0.684	0.0
2	SK	19	12	1	6	0.667	0.5
3	두산	19	12	0	7	0.632	1.0
4	키움	19	10	0	9	0.526	3.0
4	LG	19	10	0	9	0.526	3.0
6	KIA	18	8	1	9	0.471	4.0
7	한화	19	8	0	11	0.421	5.0
7	삼성	19	8	0	11	0.421	5.0
9	롯데	19	7	0	12	0.368	6.0
10	KT	20	6	0	14	0.300	7.5

KIA 타이거즈의 ‘무한경쟁’이 성적과 미래를 바꾼다.

KIA의 극적인 한 주였다. 비로 9일 경기를 쉬었던 KIA는 10일 최원준의 발로 끝내기 쇼를 연출하면서 한 주를 시작했다.

11일에는 양현종이 1회부터 4연속 안타로 3실점은 했지만, 8이닝 10피안타 7탈삼진 3실점의 피칭으로 ‘부활’을 알렸다.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주말 3연전이 KIA 팬들을 기다렸다.

유독 문학에서 ‘대첩’을 벌이곤 했던 KIA는 12일 첫 원정 경기부터 12회까지 가는 힘겨루기를 했다. 12회말 2사 만루까지 가는 상황에서도 4-4 무승부를 이룬 KIA는 13일에는 9회초 2사에서 극적인 뒤집기쇼를 연출했다.

김민식의 대타로 타석에 선 포수 한승택이 SK 마무리 김태훈을 공략해 역전 만루포를 장식했다. 이날 SK 선발 박승훈에게 쫓겨 뒤편 타선은 9회 5점을 뽑아내면서 6-4 역전승을 만들었다.

KIA의 기세는 14일에도 이어졌다.

KIA는 ‘대체 선발’ 홍건희의 6이닝 4피안타 3사사구 1실점의 호투 속 한승택의 동점 홈런, 이창진의 프로 데뷔 홈런이자 역전 투런을 묶어 4-2 연승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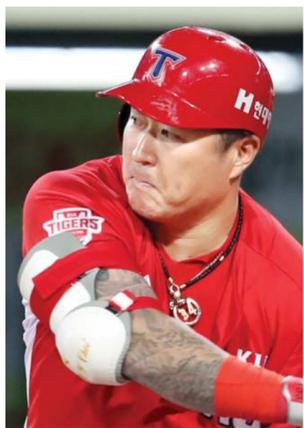
드라마 같은 한주에는 신예 선수들의 집중력이 있었다.

3루 자리를 차지한 최원준이 자신의 장점인 빠른 발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한 주를 열었다. 최원준은 안정감있는 수비로도 팀 승리에 기여했다.

한승택·이창진·최원준 등 경기력 안정감... 팀 승리 견인
김주찬 등 부상병들 복귀 준비... 이번주 롯데·두산과 6연전



김주찬



최형우

포수 한승택은 달라진 타격으로 침묵에 빠진 중심타선을 대신해 해결사가 됐다.

이창진도 눈길을 끄는 KIA의 새 전력이다. 스프링캠프에서 중견수로 처음 투입됐던 이창진은 안정감 있는 수비와 함께 매 타석 집중력있는 타격도 보여주고 있다. 이창진은 지난주 5경기에서 16타수 8안타(타율 0.500) 3타점 4볼넷 4득점을 기록했다.

힘붙은 유격수 박찬호도 공·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날렵한 움직임으로 내야 수비의 중심이 된 박찬호는 최근 5경기에서 6개의 안타도 생산했다.

부진과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진 해준 베이커, 나지완, 김주찬, 김선빈의 공백을 지운 신예 선수들의 활약이었다.

기회를 받은 백업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타석, 마운드의 경쟁도 점점 가열된다.

돌아온 임기준이 좌완 불펜 경쟁에 불을 붙였고, ‘늦깎이 신인’ 양승철과 ‘대체 선발’ 홍건희는 각각 프로 데뷔전과 시즌 첫 등판에서 승리투수가 되면서 마운드 옵션을 늘렸다.

신예 선수들의 ‘무한 경쟁’으로 유쾌한

한 주를 보냈지만, 속제는 남아있다.

주축 타자들의 부진이 KIA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특히 4번 타자 최형우의 무진 방망이가 고민이다.

최형우는 올 시즌 18경기에서 홈런 하나 포함 13개의 안타로 10타점을 수확하는데 그치고 있다. 삼진은 13차례 기록했고, 3차례 병살타로 물러났다.

신예 선수들이 맹활약한 지난 5경기에서 기록된 최형우의 타율은 0.048(21타수 1안타)이다. 지난 10일 NC전에서 생애 첫 끝내기 희생플라이를 남겼지만, 최원준의 발이 만든 ‘속스러운 결승타’였다.

김주찬을 시작으로 자리를 비웠던 주축 타자들의 복귀가 준비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베테랑들도 ‘무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상승세의 KIA는 16일부터 사직에서 6연패에 빠진 롯데 자이언츠와 주중 3연전을 벌인다. 주말에는 안방으로 돌아와 두산 베어스와 주말 3연전을 갖는다.

‘경쟁 효과’를 앞세운 KIA가 새로운 한 주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